

전자출판물 제작

작성자 - 최혜리

전자책 제작 기획

1. 장르, 주제 - 여행을 주제로 한 감성 시집
2. 전자책 포맷 형식 - ePub
3. 제작 도구 결정 - Sigil Editor
4. 기획 의도 -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속에서 느낀 감정과 순간들을 시의 형태로 담아낸다.
 - 여행지의 바람, 하늘, 사람, 그리고 머무는 찰나의 풍경을 감성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5. 타겟 - 감성적인 글과 시, 사진을 좋아하며 여행과 자기 성찰, 힐링에 관심 많은 20~30대
6. 목표 -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닌, 여행 속에서 느낀 '순간의 감정'을 시로 엮어 독자에게 마음의 여유와 감동을 전달하는 전자시집 제작

목차 설계

챕터번호	제목	내용 요약
에필로그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서	여행을 떠나기 전의 설렘과 기대, 낯선 길 위에서 마주할 순간들에 대한 두근거림을 담은 시. 새로운 여정의 첫 바람을 표현함
1장	길의 시작에 서서	떠남의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 발걸음을 내딛으며 느끼는 자유와 해방의 감정을 담음
2장	낯선 도시의 오후	낯선 거리와 풍경 속에서 느껴지는 익숙하지 않은 온도,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나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
3장	밤하늘의 스민 이야기	조용한 밤, 불빛이 사라진 도시의 하늘 아래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시적으로 묘사. 여행의 외로움과 따뜻함을 함께 전함
4장	머무름의 의미	떠남과 머무름 사이에서 깨닫게 되는 평온함. 잠시 멈춰 바라본 풍경 속에서 느낀 위로와 고요함을 시로 풀어냄
5장	돌아가는 길 위에서	여행의 끝에서 느낀 여운과 성장,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남은 따뜻한 바람의 흔적을 이야기함
프롤로그	바람이 머무는 순간	모든 여정의 끝에서, 그리고 시작에서 만나 나 자신에게 보내는 고요한 인사. '머무름' 속의 진짜 여행을 담은 시로 마무리

표지(cover) 구성 아이디어 스케치

작은 행복을 담은 기록

바람이
머무는 순간

배경
사진, 그림들

← 제목은 크게 하고
밑에 작은 본문 글씨를 작게하여
글꼴을 쓸 예정이다.

← 뒷배경 사진은 넓은 들판 사진을 이용해 제목
과 연관성 있게 사진을 넣을거고 바람에 휘날
리는 여자 사람을 넣을 계획이다 그리고 민들
레 홀씨를 일러스트로 만들어 표현할 계획이다.

-전통적 느낌보다는 감성적 일러스트 스타일

-바람,햇살이 디자인 포인트

표지 디자인 제작

서체 - 타이틀 : 손글씨 스타일 글꼴 (예:나눔손글씨 성실체)
밑에 본문도 타이틀과 똑같은 글꼴

배경 - 햇살이 비치는 들판, 따뜻한 노랑,초록 톤

맑은 하늘 + 빛나는 구름 디테일

바람을 표현하는 요소 : 훑날리는 민들레 홀씨, 햇살 플레어 효과

컬러 - 노랑,초록 계열 (자연의 따뜻한 분위기, 배경)

아이보리,화이트 (소녀의 드레스, 순수함 강조)

하늘색,파랑 (하늘과 대비, 맑음의 상징)



본문 내지 디자인

서체 - 큰 타이틀 : 글꼴 (강원교육모두체 BOLD)
본문 : 글꼴 (강원교육모두체 LIGHT)

배경은 없고 각 본문의 내용에 맞게 글 위에 사진을 하나씩 넣었다.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서

길 위에서 머무는
모든 순간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익숙한 거리와
낯선 바람 사이에서
나는 조금씩 변해갔다.

여행은
멀리 떠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일임을
배웠다.

이 시집은
그 작은 바람의 조각들을
모은 기록이다.

낯선 도시의 오후



번잡한 거리 속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

그 안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의 표정이 있었다.

모든 낯설이
익숙해지는 순간.

여행은
마음의 풍경이 된다.

밤하늘에 스민 이야기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조용한 어둠이 내려앉는다.

그때야 들리는
내 마음의 소리.

길 위의 외로움조차도
내 안의 따뜻함으로
번져간다.

돌아오는 길 위에서



여행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그날의 바람은
내 안에 남아 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진짜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머무름의 의미

떠남 속에도
머무름이 있었다.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본 풍경이
내게 말을 건넨다.

'여기서도 괜찮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댄다.

EBUP HTML

에필로그 HTML

<h1>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서 </h1>

<p>길 위에서 머무는

모든 순간은

결국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p>

<p>
익숙한 거리와

낮선 바람 사이에서

나는 조금씩 변해갔다.

</p>

<p>
여행은

멀리 떠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일임을

배웠다.

</p>

<p>
이 시집은

그 작은 바람의 조각들을

모은 기록이다.

</p>

Chapter HTML

<h1> 길의 시작에 서서 </h1>

<p>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두려웠다.

</p>

<p>
하지만

바람은 등을 밀어주었고,

낮선 하늘 아래서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났다.

</p>

<p>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엔

이미 내가 있었다.

</p>

EBUP CSS

CHAPTER CSS

```
@font-face {
  font-family: 'ga';
  src: url('../Fonts/Gangwon.ttf');
}

@font-face {
  font-family: 'ge';
  src: url('../Fonts/Gangwone.ttf');
}

.imgRight {
  width: 30%;
  margin-left: 5px;
  padding: 5px;
}

.imgRight img {
  width: 100%;
}

p {
  line-height: 1;
  padding: 1.5;
  font-size: 1em;
  font-family: 'ge';
  padding: 5px;
}

h1 {
  font-family: 'ga';
  padding: 5px;
}
```

에필로그 CSS

```
@font-face {
  font-family: 'ga';
  src: url('../Fonts/Gangwon.ttf');
}

@font-face {
  font-family: 'ge';
  src: url('../Fonts/Gangwone.ttf');
}

h1 {
  color: skyblue;
  font-family: 'ga';
}

strong {
  color: black;
}

p {
  line-height: 1;
  padding: 1.5;
  font-size: 1em;
  font-family: 'ge';
}
```

프롤로그CSS

```
@font-face {
  font-family: 'ga';
  src: url('../Fonts/Gangwon.ttf');
}

@font-face {
  font-family: 'ge';
  src: url('../Fonts/Gangwone.ttf');
}

p {
  line-height: 1;
  padding: 1.5;
  font-size: 1em;
  font-family: 'ge';
  color: green;
}

h1 {
  font-family: 'ga';
}
```